2015-18호 (2015. 10. 8)

Biweekly Tex+Fa Brief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격주로 섬유패션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업계 및 해외시장 동향, 주요 통계 자료 등을 정리하여 “Biweekly Tex+Fa Brief”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주요 이슈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

- 미국 애틀랜타에서 TPP 각료회의를 개최해온 미국, 일본 등 TPP 참여 12개국은 미국 현지시각 10월 5일(월) 협상 개시 5년 7개월 만에 협상 타결을 선언. TPP 타결로 전 세계 GDP의 36.8%(‘13년 기준), 무역의 25.3%(‘14년 기준)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출범. TPP 회원국들은 올해 안에 잔여 쟁점들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정부는 TPP의 실질적 타결을 환영하며, TPP가 향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지역 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아울러,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

☞ ‘섬유패션업계 CEO포럼’ 성황리 개최

- 2015년 섬유패션업계 CEO 포럼이 10월 5일(월)부터 7일(수)까지 2박 3일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 이번 포럼에서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전 장관의 기조강연(최근 국제경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시작으로 경제 및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이 진행됨. 아울러 행사 첫째날에는 스트림별 대표 CEO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일준 산업정책실장 주재 섬유패션산업 수출확대 간담회가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산 섬유소재 사용 비율 확대, 스트림간 협력사업 활성화, 국내 봉제기반 활성화, 원사메이커의 소재개발 지원, 한·중 FTA 활용, 무역보험 문제 등 수출확대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업계 동향

☞ 2016 S/S 헤라 서울패션위크 10월 16일(금) 개막

-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헤라서울패션위크가 10월 15일(목) 전야제를 시작으로 16일(금)부터 21일(수)까지 6일 동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이번 행사는 ‘아시아 No.1 패션위크’ 비전 달성을 위해 최초로 타이틀 스폰서 체제를 도입했으며, 전야제와 피날레 파티,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새롭게 구성. 올해 서울컬렉션 참가 디자이너는 40팀으로 16일 오전 ‘데무 박춘무’ 무대를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피날레 행사와 함께 시상식이 진행. 피날레 파티는 서울디자인재단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디자이너들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텐소울(Seoul’s 10 soul)’ 디자이너 10명이 아름다운 한국 여성을 일컫는 ‘서울리스타’를 주제로 한 특별 패션쇼인 ‘헤라 서울리스타 컬렉션’으로 꾸며질 예정

☞ 화섬업계 슈퍼섬유 사업 본격화

- 슈퍼섬유 개발에 성공한 화섬업계가 ‘제2의 전성기’를 위해 사업확대에 역량을 모으고 있음. 효성의 탄소섬유는 현대차의 차세대 컨셉카 ‘인트라도’에 적용돼 자동차 소재로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전라북도와 함께 개발한 탄소섬유 CNG 용기는 전라북도 시내버스 10대에 보급하였고, 아라미드 섬유 ‘알켁스’로 북남미 시장 진출을 확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5월 듀폰과 아라미드 섬유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이 모두 종료되면서 글로벌 시장 개척을 핵심전략으로 사업 확대 계획을 세웠으며, 도레이첨단소재는 물량 증대를 통한 시장 강화를 꾀하고 있음. ‘13년 구미 3공장 내 들어선 탄소섬유 공장은 연산 2천200톤 규모를 갖췄으며, 올해 2천500톤 규모의 증설을 완공

☞ **대구시 이업종 융합 비즈니스 기반 조성 사업 추진**

- 대구시는 지역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업종 융합 비즈니스 기반 조성' 사업(주관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동 사업에는 올해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 38억원(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민자 8억원)이 투입되며, 주요 사업내용은 섬유·의료·자동차 등 이업종 기업간 신뢰 구축 및 기술교류 협력, 융합기술 창조제품 성능 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융합제품 국내·외 홍보 등 임. 1차 년도인 올해에는 섬유와 기계, 자동차부품 등 72개 기업이 참여해 교류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창조제품 성능개선(15건), 지식재산권 확보(10건), 섬유와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창조제품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됨

☞ **TV홈쇼핑 패션과의 협업 확대**

- 홈쇼핑에서 패션 상품 매출이 높아지면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패션과의 협업이 확대. CJ오쇼핑은 SK네트웍스 패션 브랜드 제품 판매를 통해 상품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뉴욕 스타일 하이엔드 브랜드 'Y&Kei(와이앤케이)'를 론칭해 목표 대비 20%에 가까운 초과 매출을 기록. GS샵은 프라다와 한섬, 보티첼리에서 여성복 디자인을 진행했던 안수현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르네크루'를 론칭. 현대홈쇼핑은 타임, 마인, 시스템 등의 브랜드를 가진 한섬과 협업해 새로운 브랜드 '모덴'을 선보임. 롯데홈쇼핑도 가을 시즌을 맞아 국내외 유명 패션잡화 브랜드들과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신규 브랜드를 소개

◈ 해외시장 동향

☞ **국제면화기구(ICAC), 2015/16 회계연도 세계 면화교역 안정세 전망**

- 국제면화기구(ICAC)에 따르면, '15/'16년도 세계 면화 수입은 전년대비 보합세인 약 76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다음 시즌에도 중국이 세계 1위 면화 수입국이 될 전망이지만, 수입량은 약 160만톤으로 최대 수입년도인 '11/'12년 대비 30%에 그칠 것으로 예상. 중국정부는 자국산 면화 소비 촉진과 1,100만톤에 달하는 재고 문제로 내년에도 면화 수입 제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반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수입은 전년대비 4% 증가한 약 580만톤으로, 방글라데시가 전년대비 1% 증가한 97만톤, 베트남은 2% 증가한 96만톤, 인도네시아는 6% 증가한 78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국가별 면화 수출은 미국이 전년대비 9% 감소한 220만톤, 인도는 34% 증가한 120만톤, 브라질은 10% 감소한 77만톤, 우즈베키스탄은 5% 감소한 57만톤, 호주가 10% 감소한 47만톤을 예상

☞ **일본, 아웃도어 의류 시장 확대**

-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아웃도어 의류 시장은 '12년 705억엔에서 '14년 800억엔으로 연평균 6.5% 성장하여, '15년에는 824억엔에 달할 전망. 일본생산성본부의 '15년 레저백서에 따르면, 하이킹 등 야외활동을 하는 인구가 증가세. 여가시간에 걷는 인구는 '13년 3,120만명에서 '14년 3,63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하이킹 및 야외 산보 인구는 '14년에 처음으로 여가활동 상위 20위에 진입. NHK는 인터넷 활용 인구 확대로 등산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고, 등산 동료를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어서 등산 인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 특히, '10년 이후 LOHAS 등의 영향으로 젊은 여성 등산 인구가 급증하면서 여성용 아웃도어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등산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 처음으로 자체 폴리에스터 SF 생산 계획**

- 방글라데시 대기업 Deshbandhu 그룹은 방글라데시에서 최초로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화이버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 Deshbandhu 그룹은 1억2,800만불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기계설비 및 공정 지원을 위해 미국 Chemtex와 협약을 체결. 동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섬유·의류 수출은 2021년 500억불에 달할 전망으로,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화이버 수요는 연간 12%~15% 증가하여 2021년 6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현재 방글라데시는 30만톤의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화이버를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Deshbandhu 그룹의 PSF 공장이 '17년 가동하게 되면, PSF 내수 수요의 40%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파키스탄 섬유산업 생산 30% 감소**

- 파키스탄섬유산업협회(APTMA)에 따르면, 전력부족, 높은 경영비용, 일관되지 않은 정부정책, 인도와의 경쟁심화 등으로 파키스탄 섬유산업 생산 능력의 30%(34.7억불)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섬유생산 둔화로 파키스탄의 세계 섬유 수출시장 점유율은 '06년 2.2%에서 '13년 1.8%로 떨어짐. 또한, 타국으로부터 밀수되거나 보조금 영향에 따른 값싼 의류제품 수입 증가로 내수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음. 아울러, 인도의 높은 면사 수입관세(28%)로 對인도 면사수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인도 섬유산업 설비 현대화를 위한 기술향상기금(TUFS) 등 인도정부의 자국 섬유산업 지원으로 파키스탄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 이에 파키스탄섬유산업협회(APTMA)는 섬유산업 재도약을 위해 전력비용 인하, 금융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

◈ 주요 통계발표 자료

☞ **산업부, '15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 대형마트 매출은 추석 명절 시기 차이('14년 : 9/8, '15년 9/27) 등으로 인해 가정생활(△11.9%), 식품(△9.2%), 의류(△5.0%) 등의 매출이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7.6% 감소. 백화점은 명절 선물세트 수요 감소와 캐주얼 및 남성의류 상품의 판매 감소로 전체 매출이 6.5% 감소함(잡화 △6.8%, 아동스포츠 △3.2%, 해외유명브랜드 2.2%, 여성캐주얼 △5.9%, 여성정장 0.9%, 남성의류 △8.7%)

< 유통업체 매출 증감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

구분	'14년	'14년					'15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대형마트	△3.4	3.2	△10.1	△0.9	△4.7	△3.8	△18.3	24.5	△6.5	0.0	0.5	△10.2	△1.8	**△7.6**
백 화 점	△0.7	10.5	△6.3	△2.2	△6.5	△0.9	△11.0	6.6	△5.7	1.3	3.1	△11.9	0.7	**△6.5**

☞ **'15년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602개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9.7~9.17)한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에 따르면 '15년 4분기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100.4을 기록, 수출경기가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 품목별로는 석유제품(113.6), 선박(111.1), 반도체(105.6) 등의 수출경기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무선통신기기(94.4), 가전(92.9), 자동차(92.2) 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 4분기 가장 큰 수출 애로요인으로는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을 지적. 한편,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의 수출경기전망지수는 95.6으로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원자재 가격 동향

☞ 원면가격은 불확실성 확대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12월 인도물 가격은 상징적 수준(60센트/파운드) 이상을 유지.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는 '15/'16시즌 세계 원면 생산 및 소비가 8월 전망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현재 67센트 수준인 평균 "A Index" 가격도 74센트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함. 화섬원료 가격은 중국 경기부진과 국경절 연휴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PTA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며 소폭 하락했지만, MEG 가격은 공급 증가로 큰 폭으로 하락함

품 목(단위)	날짜	조건	가격	1주전 대비	4주전 대비	3개월전 대비
원면(¢/LB)	10/2	미국('15년 12월 인도분)	60.14	△0.8%	△4.0%	△10.2%
PTA($/MT)		CIF China (90 days credit term)	620	△1.2%	6.0%	△12.7%
MEG($/MT)			650	△4.4%	△7.1%	△29.4%

섬유패션산업 동향

Biweekly Tex+Fa Brief

- 발행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조사팀
-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44-31 섬유센터 16층
- 홈페이지 : www.kofoti.or.kr
- 전화 : 02-528-4024 / 팩스 : 02-528-4070